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대법원 판결 비판 토론회

“역사 비판 아직 남아”

최근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음 스님이 곧바로 항고하기로 하고 항소이유서 작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토론회를 부산의 <공간초록 www.spacechorok.org>에서 연다. 12월 15~16일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향후 환경 운동의 실천 방향 등에 대한 고민을 안고 '2006년, 생명의 대안은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세 사안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활동가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으로 새만

금-고은식, 천성산-박영관-을숙도 박종록, 김음정 활동가 등이 그간의 활동에서 환경운동의 현재와 새로운 실천과 희망의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대법원 판결문, 한국사회의 현재'라는 주제로 법률 전문가, 시민, 지음 스님 등이 발제자로 나서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비판의 시간을 갖는다. 인제대 강제규 법학과 교수, 이계삼 밀양 밀성고 교사가 법원 판결문에 대한 비판을, 지음 스님이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법'이라는 발제를,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한국 사회의 현재, 국토 생태계의 미래'라는 발제를 이어간다. 지음 스님은 "인간의 발전에서는 패자로 모두 대법원 패소 판결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 환경 운동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의 희망적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세 사안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활동가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으로 새만

환경 운동가들 한자리
지속적 연대 방안 모색

부산불교사회복지협 사례발표회

우수 기관·직원에 시상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회장 혜종)는 11월 29일 부산 크라운 호텔에서 제6회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 스님, 두송복지관 관장 지현 스님 등을 비롯 부산 불교계 복지관 종사자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의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김연하 개금복지관 팀장, 임수영 선재어린이집 원장, 이현정 화명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13명이 상을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공창복지관 송선명 복지사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주 6일제 가정 아동들의 가족기능 강화 및 심성개발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보현어린이집 시미선 주임교사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

“깨달음 향한 정진 늦추지 말길”

대불청 부산지구 현각 스님 초청법회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선원장 정여)과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는 11월 25일 부산 여여선원 법당에서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현각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을 초청법사로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현각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질적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서양에서 오히려 불교의 정신과 가르침을 갈망하고 있다”며 “불교의 철학과 가르침이아랍로 진정한 평화와 공존을 가져다주는 진리이므로 스스로 깨달음을 향한 정진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발문했다. 현각 스님의 법문에 이어 1시간여 동



안 질의를 이어갔다. '불교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른 기도법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현각 스님은 “불교는 깨달음 향한 정진의 종교다”며 “기도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도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을 주는 것일 때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천미희 기자**

회명복지관 지역 어르신잔치

11월 28일 회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정) 강당에 모인 5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은 새로운 황금시대를 맞이했다. 회명복지관이 개관 2년 만에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 ‘황금시대’를 마련하면서 이성식 북구청장, 송찬기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장, 안기석 부산노인대학 협의회 고문 등 지역의 어르신들이 환한 웃음을 띠며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관장 유정 스님은 “이렇게 많은 어버님, 어머님을 모실 수 있어 기분이 너무 좋다”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근심걱정 잊으시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잔치 축하공연에 이어 봉행된 이날 장중법회는 장중선포, 장중설립 경과보고, 총무원장 지홍 스님의 장중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지홍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부처님의 대승불교 사상으로 중생세계에 이익을 주면서 교화하는 보살행으로 수행의 지표를 삼아야 한다”며 “전종도들이 대승불교의 사상을 근간으로 중생세계가 다하도록 중생교화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는 2005년 9월 장중준비모임을 가진 이후, 2006년 10월 13일 장중 발기인대회를 갖고 중정에 혜관 스님, 총무원장에 지홍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앞서 2005년 12월 경남지역 총무원을 개설했으며 2006년 5월에는 중부 총무원을 개설했다. 현재 전국에 60여 사람이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에 등록돼 있다. **천미희 기자**

실상문학상, 양은순씨 본상 수상

실상문학상 운영위원회(이사장 혜종)는 11월25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제 9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산여류시인협회 회장 양은순씨(사진)가 본상을 강민수 시인과 정옥금 시인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양은순 씨는 수상소감에서 “본인에게 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 표현하는 경이로운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다례와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전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
부산 보광정사서 장중법회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총무원장 지홍)는 11월 25일 총무원이 위치한 부산 금사동 보광정사에서 장중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보살계 수계법회에 이어 봉행된 이날 장중법회는 장중선포, 장중설립 경과보고, 총무원장 지홍 스님의 장중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지홍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부처님의 대승불교 사상으로 중생세계에 이익을 주면서 교화하는 보살행으로 수행의 지표를 삼아야 한다”며 “전종도들이 대승불교의 사상을 근간으로 중생세계가 다하도록 중생교화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는 2005년 9월 장중준비모임을 가진 이후, 2006년 10월 13일 장중 발기인대회를 갖고 중정에 혜관 스님, 총무원장에 지홍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앞서 2005년 12월 경남지역 총무원을 개설했으며 2006년 5월에는 중부 총무원을 개설했다. 현재 전국에 60여 사람이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에 등록돼 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한정인

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 회장

우연은 없다고 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삶의 행로가 자연스럽게 불교로 흘러온 사람이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 한정인(41·정행) 회장도 그렇다.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석왕사에서 6개월을 산 것이 인연이 돼 불교를 알게 됐고 1989년 직장을 따라 울산으로 옮겨 왔을 때 그는 노동운동 대신 불교운동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타향인 울산이었지만 ‘불교’가 있어 그에게 울산은 살만한 도시가 됐고 내면세계를 키워준 고향이 됐다. 그래서 그는 울산 불교를 위해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청년 불교가 한창 불붙었던 시절에 불교 운동을 시작했으니 지금의 침체

된 불교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울산에 오자마자 몇날 며칠을 헤매며 찾았던 곳이 해남사였다. 곧바로 해남사울산불교청년회에 가입해 사물놀이팀을 만들어 활동했다. “그때는 법회인원이 120명이 넘었어. 신이 났죠. 그러나 노동운동을 하던 눈으로 봤을 때는 조직관리나 지도자 양성이 너무 안 돼 우려도 컸습니다.” 한 회장의 우려는 그리 머지않아 현실로 드러났다. 청년회 활동이 침체되기 시작하던니 법회인원이 현저히 줄었고 지금 울산에서 청년회 법회가 열리는 곳이 3-4곳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나 한 회장에겐 포기나 절망은 없다. 노동운동 당시부터 ‘강성’으로 통했던 그는 불교를 통해 성품은 많이 유해했지만 아직도 될 때까지 하고야 마는 근성을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회장은 ‘지칠 줄 모르는 무한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통한다. 청년 불교의 침체를 말하는 시점에서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을 씬 없이 해나가기 때문이다. “청년 불교가 무너지면 한국불교의 ‘허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청년들 스

될때까지 하고 마는 ‘무한에너지 지닌 사람’

창원·거제 등 순회하며 ‘활성화’ 함께 모색

원 불교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울산은 물론 진주, 통영, 마산, 창원, 거제까지 지회순회를 하고 돌아오면 새벽 1,2시를 훌쩍 넘기곤 했다. 그러나 한 회장은 쉬지 않고 지구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를 열었다. 청년 불교 운동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바로 임원들이기 때문이다. 그의 활동이 청년포교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지금은 활동을 접었지만 2000년 초에는 울산불교신행단체연합회의 사무국장을 맡아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포교지 월간 ‘불향’을 만드는 중심에 있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청년 불교운동의 총칭지는 ‘회향’이 여기에 그는 울산과 경남의 불교 발전에 청년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그날까지는 결코 지지 않는 에너지를 뽐내겠다는 각오로 가득 차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울산지사 : (052)272-0909



현몽을 통해 이어진 인연 따라 불광사에 온 흰색자라 구경하러 오세요

얼마 전 우리 불광사에는 세계에서 두 마리뿐으로 추정되는 희귀한 ‘하얀 자라’ 한 마리가 있어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불광사에 보호 중인 이 자라를 보기위해 하루 수백 명이 사찰을 찾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희귀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봉스님(불광사 주지)이 지난달 말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서 데려온 이 자라는 1년 5개월 된 암컷으로, 길이 20cm 무게 400g의 체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몸체는 물론 머리, 다리 등 전체가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청봉스님은 “꿈속에서 웅공에서 왔다는 흰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자신을 위해 불광사에서 기도하여 좋은 곳으로 보내 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간절히 애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아침에 무심결에 TV를 켜는데, 뜻밖에 YTN TV뉴스에서 흰색 자라에 대한 내용이 나왔구요.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해 보니 수천만원을 호가한다는 말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꿈에 흰색 자라가 나타나 ‘스님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잘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미소를 지으시며 흰 자라의 등에 올라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꿈에서 두 번이나 부탁하는 자라를 외면할 수 없어서 그 다음날 일찍 자라가 있다는 충북 청원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직접 가서 흰색자라에게 사과라도 해야 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물어 물어 힘들게 찾은 흰색자라 주인에게서 뜻밖에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들도 스님과 비슷한 선몽을 받았는데 ‘흰색 자라를 팔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스님이 데려가서 현몽한 대로 기도한 후 좋은 곳에서 살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흰 자라가 우리 불광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흰 자라와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SBS TV 생방송 투데이프로그램과 언론사에 화제거사로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매일 구경하러 오고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하시기바랍니다.

문의전화 (055)364 -4747

경남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656번지

2006년 12월 좋은날
천성산 불광사 신도일동